

비상대책위특보

제 157호

2012년 9월 17일 (월)

“김재철 국회 청문회 28일에 열 수 있다” 환노위, 무용가 씨 남편 증언도 추진

김재철을 출석시켜 그동안 구성원들을 상대로 자행한 불법 탄압과 부당 노동행위를 추궁할 국회 환경노동위(이하 환노위) 청문회의 일정과 윤곽이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와 달리 환노위는 제 1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다 심상정 의원까지 야당 의원이 여당보다 1명 더 많아 청문회 개최는 문방위에 비해 훨씬 수월하다.

김재철의 부당노동행위 집중 추궁

특히 김재철이 파업 이후 구성원 사찰과 감시를 위해 무차별 불법감청 프로그램과 고화질 CCTV를 설치한데 이어 야비한 인사보복에 계속 광분하고 있어 청문회 개최 명분도 충분한 상황이다. 환노위의 야권 간사인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청문회 개최는 “MBC가 노사 간 단협, 공정방송 조항을 위반했다고 노조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여부를 따져보고,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단체행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등의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또는 28일에 청문회 가능”

<미디어 오늘>은 청문회 개최가 27-28일 경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추석연휴가 지나면 곧바로 국정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추석 전에 청문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홍영표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일 쌍용자동차 청문회 때문에 환노위가 열린다”며 “20일 이 문제를 의결한다면 27-28일 경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문화진흥회가 27일에 김재철과 정영하 위원장을 별도로 출석시켜 사실상의 청문회인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방문진의 일정을 감안할 경우 28일 환노위 청문회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재철은 이제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청문회 출석을 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표결 처리를 통해서라도 김재철 출석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설사 청문회를 김재철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야권은 이어지는 국정감

사에서 ‘김재철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집중 해부한다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표결해서라도 김재철 출석 의결

이와 관련해 홍영표 의원은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간사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미 8월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 10여 차례나 간사협의를 했다”며 “새누리당에서 동의하지 않아 기다렸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의원은 “단독으로라도 우리가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새누리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고 있고, 국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돼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김재철 청문회와 국회 출석을 반대할 경우에 대비한 명분도 가다듬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새누리당은 MBC 청문회가 환노위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MBC 파업을 ‘노사 문제’로 규정한 바 있다”며 “새누리당 스스로 MBC 파업을 노사 문제로 규정해 놓고, 환노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계속 반대할 경우 표결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용가 씨 남편 참고인 증언 추진

환노위 청문회인 김재철 외에도 김재철의 앞잡이로 노조 탄압에 앞장 선 회사 주요 간부들과 노조 집행부 일부도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광한 부사장 장과 임진택 감사, 조규승 경영본부장 등의 증인 채택 가능성이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김재철의 배임혐의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무용가 씨의 남편 우치노 변호사도 본인이 증인 의사를 밝힌 만큼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환노위의 청문회와 이어질 국정감사를 통해 MBC 사태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일각에선 추석 전 청문회가 일정상의 이유로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정감사 기간이라도 하루를 정해 김재철을 출석시켜 MBC 사태를 추궁하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고개를 드는 등 김재철에 대한 압박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MBC 정상화 총력투쟁 오늘부터 돌입

서울 5개 거점 중심으로 서명운동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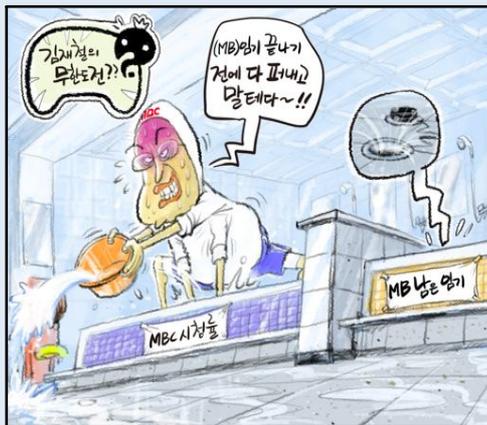
조합은 오늘부터 28일까지 12일 간을 <MBC 정상화를 위한 총력 투쟁 기간>으로 선포하고 오늘부터 김재철 퇴진과 구속을 촉구하는 1천만 범국민 서명운동을 재개한다. 조합은 오늘 오전 11시 여의도 본사에서 <MBC 정상화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식을 거행한다. 이어 조합은 국회를 찾아 지난 파업기간에 받은 80만 명의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재철 퇴진할 때까지 일천만 명 서명운동 국회에 서명지를 전달한 뒤 조합은 서명운동의 목표를 1천만 명으로 상향 조정해 김재철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재돌입한다. 복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기상이 악화될 경우엔 서명운동 돌입날짜가 하루 이틀 정도 늦춰질 수도 있다. 김재철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은 김재철이 물러나는 날까지 계속된다. 조합은 가능한 모든 조합원들의 참여에 서명 작업과 피켓팅 전단지 살포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과 전국 19개 지부별로 동시에 서명운동 서명운동과 피켓팅, 전단지 살포 등은 파업기간과 마찬가지로 서울과 전국 19개 지부별로 동시에 진행된다. 서울의 경우 광화문과 명동, 신촌, 홍대, 강남 등 시민들의

동행이 활발한 5군데를 거점으로 서명운동을 집중적으로 거행한다.

서명운동 장소 부근에서는 파업기간 여러 만화가들이 공영방송 파업 사태를 주제로 그린 만화들을 전시하는 행사가 향후 2주 동안 함께 개최된다. 다음은 전시될 만화중의 한편으로 권범철 화백이 MBC 사태를 주제로 그린 만화이다.



김재철의 무한도전

김재철의 불법감청 광범위하게 자행 재확인

조합, 피해 사례 중간 점검 결과

김재철 측의 무차별 불법감청으로 개인적인 전자 통신 내용들이 침탈당한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적인 내용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회사 서버로 전송됐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특히 업무상 메신저 등을 많이 사용하는 작가들의 경우 피해가 많았고 <PD수첩> 작가들 역시 불법 감청의 표적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은 취재원과 연락 등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보도부문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와 노조 집행부의 피해 사례를 아직 분석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무차별 불법 감청의 사례가 생각 이상으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이었던 것으로 거듭 드러났다.

조합은 김재철 측의 무차별 불법 감청 내역을 자세히 밝혀 수사기관의 김재철 측 사법처리에 충분한 자료가 되도록 할 것이다.

지역사 보유금 노린 정관개정 즉각 중단하라!

지역사 사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추가 이사 선임을 위한 주총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7일 울산, 춘천, 강릉, 삼척의 주총이 열려 정관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오늘 17일에는 나머지 지역의 정관 개정을 위한 주총이 예정되어 있다. 지역사 사장을 식물 사장으로 전락시키는 폭거이자 지역사회 자율 경영권을 박탈한 현대판 '울사밀약'이 아니고 또 무엇인가.

지역사 임시 주총은 현대판 울사밀약

그런데 이번 정관 개정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작업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관계회사부가 지역사의 가용자금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것은 매년 한차례 이루어지던 유보금 현황 보고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며 3개월 단위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구체적이고도 이례적인 지시였다.

이는 이자율이 낮아 이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지역사 가용 자금으로 투자해서 지역사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간부회의 내용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지역사 구성원들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한다. 각 지역사가 보유한 자금이 서울 간부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인가? 40년 넘게 지역사 구성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자금이며 앞으로 지역사의 방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립해 둔 자금이다. 어느 개인이 지역을 위한담시고 함부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지역사 보유금은 서울 몇몇 간부들의 쌈짓돈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껏 본사가 주도해 지역사가 투자한 사업치고 성공을 거둔 것이 있는가? 지난 1997년 영화 '꽃을 든 남자'부터 시작해 '도둑맞고는 못살아' 등 무한 투자 영상 조합을 만들어 투자한 영화마다 실패했다. 또한 '대장금' 등 각종 뮤지컬 제작을 위한 펀드인 '문화 펀드'에 투자한 지역사는 배당금은커녕 원금 보전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이제는 상식이 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 2010년 5월 시작된 드라마 '김수로'는 하이라이트이다.

본사가 주도해 영남 4사가 각각 5억 원씩을 투자한 드라마 '김수로'는 배당금은 커녕 아직 정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지역사에서는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긴 한숨을 쉬고 있는 실정이다.

실상이 이런데도 지역사 보유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지역사를 위한 것이라고 떠들 자질이 있는가?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지역사를 진정으로 위한 길은 지역사가 자율 경영을 하도록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역사를 제발 건드리지 말라.

본사가 주도해 투자한 사업치고 성공한 사업 없어

따라서 지역사 구성원들은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반강제로 진행되고 있는 정관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이번 임시 주총은 지역 대표이사의 손발을 묶고 수적 우위를 확보해 지역사의 보유금을 빼가기 위한 꼼수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를 강제 통폐합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

지역사 정관 개정 작업은 보유금을 빼가기 위한 꼼수

다시 한 번 경고한다. 김재철과 그 부역자들은 지역MBC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임시 주총을 즉각 취소하고 개정된 정관을 원상 복구하라. 그리고 이제 곧 방문전에 의해 내려질 심판을 조용히 기다려라. 그것이 진정 공영방송 MBC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

조합은 지역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관 개정 시도를 목숨을 다해 막을 것이며 지역사 구성원의 피땀으로 모은 보유금을 빼가려는 자들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2년 9월 14일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우리가 <PD수첩> 대체작가를 거부하는 이유

<PD수첩> 작가 전원 해고 사태에 항의하는 다른 방송사 작가들의 릴레이 기고. 오늘은 EBS에서 일하고 있는 윤승희 작가의 글을 실는다. 윤승희 작가는 MBC <생방송 화제집중> <사과나무> <W>에서 작가로 일한 뒤 EBS에서 <월드리포트> <명미> <다큐프라임> 등을 집필하고 있다.

당장 방송이 코앞이다. 편집구성안을 쓰다가 달력을 보니 가을 개편을 위한 기획회의가 시커먼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 한밤중에 손이 떨리고 호흡도 가빠온다. 10년이 넘게 방송작가로 일해 왔으면서도 당직 익숙해지지 않는 울렁증. 제작과정 내내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혹시 이 방송으로 인해 누군가 상처 받거나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시청자가 TV를 보느라 투자한 1시간의 가치는 하고 있는가?' 자학에 가까운 자문자답을 반복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방송작가의 직업병이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를 괴롭힌다. 전쟁이나 고문, 자연재해 등 심각한 사고를 겪은 사람이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 순간 고통의 현체를 반복하게 되는 병. 한 달 전 MBC <PD수첩> 작가의 전원해고 사태 그 즈음 정신에 희미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빈자리를 대체할 작가를 구하며 작가들의 집필거부를 이해 못 하겠다'는 몇몇 MBC 윗분들의 말씀이 있는 후, 나의 마음엔 '썩' 하고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깊디깊은 크래바스가 생겼다. 거기서는 '맘에 안 들면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부품'이라는 방송작가로서의 자괴감과 슬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자존심을 훼손당하고 모욕당한 분노가 회오리쳤다.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내쫓긴 <PD수첩> 작가들의 일은 어느새 나의 일(적)에도 내게 생길 수 있는 일이 돼버렸다.

방송작가들을 일회용품 취급하는 MBC '필요할 때 창의적인 콘텐츠의 경쟁력은 작가라며 골수까지 빼먹지만, 우리의 이해관계에 배치되거나 눈에 가시 같으면 존재가 되면 언제든 바꿔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 방송작가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번 사태의 본질과 해결 방안을 이성적으로 고민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울화가 치밀었다. 방송작가란 직업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개편마다 모가지가 달랑달랑하는 불안한 고용환경에 발을 밟 먹듯 사는 고된 작업과정. 거기다 제작비가 감축되면 매일 먼저 깎이는 게 원고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편을 떠나지 않았던 건, 잘난 것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방송을 통해 '밥값' 하는 사람이 됐다는 자부심 때문이었다. 시사 프로그램이든 휴먼 다큐멘터리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 인간 내면에 잠재해있는 선함과 희망의 이야기를 담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거기에 호응했었을 때는 말 그대로 황홀한 행복감을 느꼈다. 그 심정은 모든 방송작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직업이든 돈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 순정을

다 바쳐 최선을 다했으나 진정성을 부정당하고 오히려 매도당할 때 인간은 버릴 수 있을까?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하고,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작가란 낙인이 찍혀버린 PD수첩 작가들, 아마 나라면 화병으로 쓰러졌을 거다. 노트북을 싸들고 방송 편을 떠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방송작가로서의 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디를 가도 불안한 영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의 자존감과 양심을 짓밟지 말라

<PD수첩> 작가 해고 규탄과 대체작가 거부 집회에 나갔던 지난여름, 보라색 방송국 건물을 보다 울적 눈물이 솟았다. 방송작가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청춘의 몇 년을 보냈던 그곳. 자료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밤새 대본을 쓰던 대신 배틀의 뒷모습을 기억한다. 성역 없이 두려움 없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헤집던 <PD수첩>작가는 나 같은 초보 작가들에게 꿈이었다. '언젠가 나도 <PD수첩> 작가가 될 수 있겠지' 'MBC를 떠나 일하면서 언젠가는 돌아오고 싶던 진정성이 눈앞에서 물러가고 있었다. '불이익'을 위한 작가가 해고였을 뿐! '말 잘 듣는 작가 급구'란 말로 작가의 자존감과 직업적 양심에 통물을 끼얹는 것보다 더한 모욕을 가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억울하게 질렸든 말든 부르던 언제든 달려가고, '그렇지만 사안이 있었잖!'라며 타협해줄 작가가 있을 거라 단언시킨 지금의 MBC가 슬프고 소름끼쳤다. 방송작가들을 무늬아 취급한 죄, 양심적이고 당당한 밥벌이를 차시하고 불굴하게 만든 죄, 용서하기, 참으로 힘들다. 혹시라도 건넌다면 'PD수첩' 작가 좀 구해줄 수 있을까?' 하는 구인 전화는 돌릴 생각조차 안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정도 바닥밖에 안 되는 인간으로 보입니까?' 하고 옥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시대의 파수꾼 역할을 하던 <PD수첩>의 불방사태는 안타깝고 걱정스럽지만 해고된 작가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제작 당사자들의 인적과 권리가 무시되고 권력에 억압받는 상황에서 방송으로만 정의와 진실을 외친다는 자체가 우스울 뿐이다. 어느 작가가 그 격려받은 꼭두각시놀음에 동참했는가

정재홍 선배를 비롯한 PD수첩 작가들의 상처는 이 사태가 순리대로 해결되면 나을 수 있었지만, 이 무서웠던 여름 내 흘렸던 눈물과 가슴에 쌓인 울분은 누가 치유해줄 수 있을까? 악한 권력자들을 향했던 펜대의 날카로운은 지금 싸워야 할 사람들을 향해 겨누지만, 부디 가만하고 약한 우리 이웃들을 응시했던 따스함은 남겨서 스스로의 상처를 돌봐주시기를, 다시 돌아갈 날을 위해서, 당당하고 행복한 밥벌이를 꿈꾸는 방송작가들, 92명이 함께 하는 한 <PD수첩>은 소생불가능한 뇌사상태는 아닐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두 눈 번쩍 뜨고 깨어나 22년의 역사를 다시 이어나갈 것이다. 기적이 아닌 필연으로.

KBS, 대선 공정보도 노사합의 본격가동

진일보한 심층취재 <뉴스 9> 의혹검증 보도물 첫 선

<KBS 뉴스 9>는 지난 12일 정준길 새누리당 전 공보위원의 불출마 협박을 들었다는 택시기사의 증언을 현장취재를 통해 파헤치는 심층보도 리포트를 내보냈다. 기계적 균형을 가장한 사이비 프레임이 설정해 놓은 뒤 모든 진실을 정치 공방에 매몰시켜온 정치 보도의 관행, 구태와는 분명한 선을 긋고 사실 확인을 통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시비를 가리는 취재 기법과 접근방식이 단연 돋보였다. KBS의 이 보도는 다음 날 여러 신문에도 대서특필됐고 정준길 전 공보위원은 결국 택시 기사의 증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입각 의혹검증' 리포트, 차별화 돋보여

이어 <KBS 뉴스 9>는 다음날인 13일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언급한 안철수 교수의 산업은행 관련 뇌물 공여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시도했다. 정준길 전 공보위원과 당시 산업은행 관계자 측, 그리고 검찰 수사팀에 대한 취재결과를 담아 의혹이 사실과 거리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 역시 공방만을 나열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부추기는 인상을 줬던 '김재철 MBC'의 보도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시각과 보도 자세였다.

노사합의 따른 대선 공정보도체제 가동한 KBS

<KBS 뉴스 9>의 이런 보도들은 지난 12일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각종 의혹 등을 검증 보도하기 위한 대선후보 검증단과 노사가 공동으로 선거보도를 모니터링하는 대선공정방송위가 출범한 것과 때를 맞춰 나왔다. 위에 언급한 두 리포트는 모두 대선후보 검증 특별취재팀에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KBS 세 노조와 김인규 사장이 합의한 내용 가운데 일부가 구현된 결과물인 것이다.

MBC의 공정보도 첫 걸음은 김재철 OUT

김재철은 얼마 전 임원회의에서 KBS나 MBC나 뉴스에 큰 차이가 없는대 시청률에 차이가 나는 건 조직이 안정되지 못한 때문이라며 자신으로 인한 스테이전 이미지 저하와 시청률 추락의 책임을 노동조합 탓으로 전가하는 비열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시청자들이 방송 3사의 뉴스를 어떻게 평가하며 그 중에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뉴스가 어느 회사의 것인지 시청률 지표로 통해 매일매일 확인되고 있다. 김재철은 터무니없는 억지로 자신을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속히 MBC를 떠나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MBC가 살 수 없고, MBC 뉴스가 되살아날 수 도 없다. 증언부인이 필요 없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